

인공지능(AI) 시대,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사회학적 전망

김 선 필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
- III.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선 한국 천주교회
- IV. 나가는 말

국문 초록

알파고(AlphaGo)와 챗GPT(ChatGPT)의 등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 곳곳에 깊숙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이 바꿀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국 천주교회 역시 인공지능이 불러올 변화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다소 미흡한 상태이다. 본고는 인공지능이 불러올 한국 교회의 변화를 사회학적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선 한국 사회와 천주교회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의 현실과 인간

의 욕망, 그리고 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봄으로써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인공지능이 한국 교회에 초래할 도전들을 전망하고, 한국 교회는 그러한 도전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논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 교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오늘날 보편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 정신과도 일치한다. 한국 교회가 시노드 교회의 모습으로 쇠신해 나간다면 인공지능 시대에도 계속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인공지능, 할루시네이션, 이마고 호미니스, 한국 천주교회, 시노달리타스

I. 들어가는 말

어린 시절 즐겨보던 영화와 만화 속 로봇들은 인간처럼 느끼고 생각하며 또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그야말로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으로 인간을 도와주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 존재들이었다. 그렇게 영상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았던 로봇들은 언젠가 산업용으로 개발되어 실제 모습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애완용 강아지, 음식을 나르는 식당 종업원 등과 같이 인간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도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어서 등장한 알파고(AlphaGo)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압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챗GPT(ChatGPT)는 그런 인공지능이 인간과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인간이 원하는 정보를 초 단위로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 바야흐로 영상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았던 로봇들이 인간과 자유롭게 교류할 날도 머지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과학 기술의 발달만을 단순하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닮은, 어찌 보면 인간을 뛰어넘을지도 모를 존재의

등장은 인류가 이제껏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인공지능과 인간은 공존 가능한가?’ 등의 다양한 질문과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¹⁾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의 실존과 관련된 종교적 차원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국내 개신교와 불교 등 이웃 종교계에서 관련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²⁾ 특히 개신교에서는 인공지능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공지능을 통한 예배와 설교가 가능한 것인지, 목회 활동 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인공지능이 교회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³⁾

-
- 1) 참조: 고인석,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법”, 『황해문화』 93, 2016, 251-263; 이재현, “인공지능에 관한 비판적 스케치”, 『마르크스주의 연구』 13/3, 2016, 12-43; 고인석,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진 존재일 수 있는가?”, 『철학』 133, 2017, 163-187; 김영진, “인공지능, 종교적 명상, 그리고 마음의 지향성: ‘명상하는 AI’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 『철학사상문화』 24, 2017, 1-27; 신상규, “인공지능은 자율적 도덕행위자일 수 있는가?”, 『철학』 132, 2017, 265-292; 김영래,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 『철학논총』 91, 2018, 105-128; 목광수,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격 개념”, 『철학논총』 90, 2017, 187-212; 박정식, “인공지능과 인간의 마음”, 『코기토』 86, 2018, 195-218; 이상욱, “인공지능과 실존적 위험: 비판적 검토”, 『인간연구』 40, 2020, 107-136; 임명성, “인공지능이 침범하지 말아야 할 인간의 고유영역에 대한 탐색”, 『로고스경영연구』 18/4, 2020, 159-192; 최경석, “인공지능이 인간 같은 행위자가 될 수 있나?”, 『생명윤리』 21/1, 2020, 71-85; 신은화, “AI 시대 인간의 정체성과 소외”, 『동서인문』 15, 2021, 5-42; 배영임·김유나, 『인공지능의 윤리적 쟁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기연구원, 2022; 김건우, “인공지능 법인격 논쟁 다시 보기: 철학적 분석”, 『법철학연구』 26/3, 2023, 205-246.
- 2) 불교계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다음을 참조: 이상현, “붓다의 시선으로 본 인공지능”, 『평화와종교』 2, 2016, 151-170; 한성자, “인공지능(AI) 로봇의 해탈 가능성: ‘인간은 생각하는 기계인가’에 대한 불교적 관점”, 『한국불교학』 85, 2018, 7-34; 김종용·박문기, “인공지능(AI)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선불교의 윤리적 접근”,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84, 2020, 337-367; 이충현, “인공지능의 자아 정체성 문제를 통해 본 인지과학과 불교의 ‘자아 없음’ 입장 비교”, 『인문과학연구』 52, 2024, 183-211.
- 3) 참조: 김병석, “인공지능(AI) 시대, 교회 공동체 성립요건 연구: 예배와 설교 가능성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40, 2016, 9-41; 김병석, “급변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시대의 예배와 설교의 위치”, 『신학과 실천』 59, 2018, 153-182; 장보철, “인공지능에 대한 목회신학적 고찰”, 『신학과 실천』 59, 2018, 247-267; 전대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목사의 가능성과 그 문제: 마음, 영혼, 혹은 ‘의식적 의지’의 본질

천주교 차원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황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다루는 문헌과 메시지가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황청 문화평의회는 2017년에 ‘인류의 미래’라는 주제로 총회를 열어 인공지능을 포함한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을 다루었고,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2020년에 『인공지능 윤리를 위한 로마 백서』(*Rome Call for AI Ethics*, 이하 『로마 백서』로 표기)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⁴⁾

한국 천주교회(이하 한국 교회)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 논문들이 다루는 주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소개, 인공지능의 인격성과 한계, 교회 안에서 인공지능의 역할과 도전, 4차 산업 혁명 시대 교회의 역할 등이다.⁵⁾ 그런데 그것들은 신

을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32, 2019, 10-50; 박현신, “인공지능 혁명(AIR)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설교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57, 2020, 82-115; 이성민, “인공지능 시대의 예배와 설교”, 『神學과世界』 99, 2020, 251-283; 임준섭·함영주, “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생들의 인식 연구와 기독교교육학적 의의”, 『기독교교육논총』 61, 2020, 233-262; 황병준·박도훈,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에 대한 미래교회 대응방안 연구”, 『신학과 실천』 68, 2020, 811-837; 서진호, “폴 테리히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AI 설교의 가능성과 한계”, 『신학논단』 113, 2023, 165-192; 이길용, “대화형 인공지능 시대 교회의 역할”, 『신학과 선교』 66, 2023, 77-103; 최성훈, “인공지능과 한국교회: ChatGPT를 중심으로”, 『ACTS 신학저널』 58, 2023, 165-192; 옥장흠, “인공지능 챗GPT의 교육목회에 효율적인 활용방안”, 『기독교교육논총』 78, 2024, 57-85.

- 4) 참조: 교황청 문화평의회, 『4차 산업혁명과 인류의 미래』; 교황청 생명학술원, 『인공지능 윤리를 위한 로마 백서』; 프란치스코, 『인공 지능과 평화』; Francis, “Address of his Holiness Pope Francis”(2024.6.14),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speeches/2024/june/documents/20240614-g7-intelligenza-artificiale.html> (검색일: 2024.9.5); Francis, “Message of the Holy Father Francis to the Participants in the ‘AI Ethics for Peace’ Gathering”(2024.7.10),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messages/pont-messages/2024/documents/20240710-messaggio-ai-ethics-forpeace.html> (검색일: 2024.9.10).
- 5) 참조: 김도현, “AI 시대의 도래와 교회의 미래: AI의 현실에 관한 분석과 교회에 끼칠 영향 진단”, 『神學展望』 216, 2022, 79-118; 김태오,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인간의 인격개념 사용 문제: 신학적 인간학의 인격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가톨릭신학』 31, 2017, 95-129; 노상욱,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의 역할”, 『이성과신앙』 65, 2018, 7-21; 유정원,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체험 앞에서”, 『가톨릭평론』 31,

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인공지능이 한국 교회의 현실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과 대안을 다루는 구체적인 논의는 다소 미흡했다.

한편 인공지능은 과학 기술로서 우리 삶에 단순하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용되어 활용된다. 결국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고, 그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한국 교회 안에 적용될 방식을 단선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공지능이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한국 교회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교회 구성원들이기에 그들이 처한 현실 안에서 인공지능이 한국 교회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인공지능이 불러올 한국 교회의 변화를 사회학적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⁶⁾ 한국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선 한국 사회와 교회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우선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의 현실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봄으로써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한국 교회에 초래할 도전들을 전망하고 한국 교회는 그러한 도전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논할 것이다.

2021, 24-32; 조성문, “미래 사목 대안: 메가트렌드 안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모색”, 『누리와말씀』 49, 2021, 167-197; 방종우, “『AI 윤리에 관한 로마의 호소』에 나타난 윤리적 원칙들에 대한 고찰”, 『인격주의 생명윤리』 12/1, 2022, 29-69.

6) 사회학은 사회 현상의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 분야이다.

Ⅱ.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 특히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인공지능 기술에 녹아들어 있는 인간의 욕망(욕구)과 그것이 초래할 문제들을 성찰하고 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검토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선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1. 인간의 욕망을 현실로: 이마고 호미니스의 등장

오래전부터 인간은 자신과 닮은 존재(인간의 모상, *imago hominis*)를 창조하고 싶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닮은 존재, 곧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창세 1,26-27 참조)과 흡사하다.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창세 3,1-7 참조)이기에 자신을 닮은 존재를 창조하려는 욕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과거 이러한 욕망은 SF 영화나 만화에 등장한 로봇으로 재현되었다. 아직 인간의 이성이 그 욕망을 실현할 정도의 기술을 얻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영상 속 로봇들은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과 능력(예를 들어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닌다)을 갖춘 존재, 곧 인간이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초(超)인류의 모습으로 묘사됐다. 이렇듯 인간은 자신을 닮은 존재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었다.

로봇으로 형상화된 인공지능은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조금씩 그 모습을 인류 앞에 드러내기 시작했다. 컴퓨터는 0과 1의 숫자로 대규모 연산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알고리즘(*algorithm*)의 고도화와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오랜 꿈이었던 초인류의등장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

이 쉽게 찾아낼 수 없는 자료나 오류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주고, 상업적으로는 SNS나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맞춤형 광고나 상품 추천 등의 기능을 선사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로봇은 인간 대신 커피를 내려주고 음식을 나르고 있다.

한편 2022년 11월에 OpenAI가 출시한 챗GPT의 등장은 인공지능이 “가져다줄 위력을 느끼게 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될”⁷⁾ 법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는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인간이 요구하는 답을 찾아주고 그 과정에서 받게 되는 인간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재차 검토·강화하며 스스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바야흐로 엄청난 양의 지식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인간과 대화하고, 그 대화를 통해 이해의 깊이를 심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인간과 소통하는 존재, 곧 인류가 꿈꾸어온 초인류로서 바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열광했다. 인공지능은 불과 몇 초 만에 인간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소설을 만들며, 논문을 제작해 주었다. 현 인류는 인공지능이 내놓는 성과물에 놀라워하며 서서히, 아니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속도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챗GPT 사용자는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을 넘었고 두 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다. 2025년 2월, 주간 사용자는 4억 명을 넘어섰다.⁸⁾ 이처럼 사람들은 챗GPT의 등장과 더불어 보다 편리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의 활용 분야는 학술과 정책을 넘어 예술과 문화, 종교, 일상의 영역까지 다방면으로 확장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은 챗GPT의 출시와 함께 인류의 삶에 더욱 깊숙이 다가왔으며, 그 영향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레 인류를 찾아온 인공지능 시대가 마냥 긍정적인 미래를 열어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의 가공할 만한 능

7) 박태웅, 『박태웅의 AI 강의』, 한빛비즈, 2023, 6.

8) Reuters, “OpenAI’s weekly active users surpass 400 million”, *Reuters*(2025.2.21), <https://www.reuters.com/technology/artificial-intelligence/openais-weekly-active-users-surpass-400-million-2025-02-20/>(검색일: 2025.3.8) 참조.

력이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제하고 특정한 의도에 맞게 조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검색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의도에 맞는 정보만을 노출시킴으로써 인간 개인과 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조종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대 사회의 토대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⁹⁾ 또한 인공지능은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신’¹⁰⁾ 하느님의 뜻을 거스름으로써 그분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¹¹⁾ 마치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든 것처럼, 인간의 모상인 인공지능이 자신의 창조자인 인간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그 자체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451년에 설립되어 600여 년간 인류가 만들어낸 문화적 유산을 수집·보관하고 있는 바티칸 도서관은 디지털화된 소장 자료를 해킹하려는 이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¹²⁾ 이처럼 인공지능이 인류의 공동선(common good) 증진을 위해 선용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탐욕을 위해 악용된다면 그것은 인류를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Vladimir Putin, 1952-)은 인공지능 기술을 무기 개발에 접목시키겠다고 공언했다.¹³⁾ 이제 인류는

9) 문의빈, “사상의 자유의 재조명: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형성과정의 조종 가능성을 중심으로”, 『公法研究』 52/3, 2024, 101-126 참조.

10)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30항 참조.

11)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deepfake,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은 성착취, 성폭력 범죄로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12) Harriet Sherwood, “Vatican enlists bots to protect library from onslaught of hackers”, *The Guardian*(2020.11.8),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nov/08/vatican-enlists-bots-to-protect-library-from-onslaught-of-hackers>(검색일: 2024.9.4) 참조.

13) 정지주, “푸틴 ‘군수산업 다음 차례는 AI 도입’”, 『KBS뉴스』(2024.2.2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7717>(검색일: 2024.9.4) 참조.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선악과 혹은 자신의 모습을 닮은 이마고 호미니스의 등장 앞에서 또 다른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2. 이성을 통한 구원: 인간의 오래된 꿈

최초의 인간은 하느님계로부터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관리하도록 역할을 부여받았다(창세 1,28 참조). 이 점에서 그들은 세상을 자기 힘으로 통제하고 싶은 욕망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¹⁴⁾ 실제로 뱀은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욕망을 부추겨 그들이 하느님의 명을 어기도록 만들었다(창세 3,1-7 참조). 원죄(原罪)를 범하고 평생 땅을 일구어야 살아갈 수 있게 된 인간은 자신의 그 욕망을 생존을 위한 노력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었다.¹⁵⁾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며,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것은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이어졌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하느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께 삶을 의탁해 왔다. 그러나 근대에 접어들어 국면이 달라졌다. 자연 과학의 발달과 계몽주의의 확산은 인간이 하느님 없이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욕망을 다시 일깨웠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인류는 인간의 이성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혁명 이후 종교는 인류의 진보를 방해하는 구체제(Ancien Régime)의 산물로 취급받았고 인간은 스스

14)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창세 3,6).

15)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창세 3,19).

16) 이 과정에서 인간의 중국적인 한계, 곧 죽음을 이기려는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 시황제의 불로장생을 위한 노력이었다.

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자 했다. 혁명 직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행해진 ‘이성의 여신’ 숭배 예식은 이러한 근대인들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줬다.¹⁷⁾

그것은 사회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사회 과학(사회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 1798-1857)는 『실증철학 강의』(*Cours de philosophie positive*)를 통해 인류가 ‘신학적 단계’에서 ‘형이상학적 단계’를 거쳐 ‘과학적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곧 인류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인간의 이성에 기반한 과학 기술이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 체제를 맹렬하게 비판했던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 역시 인간의 이성을 깊이 신뢰했다. 그는 과학 기술을 발달시킨 인류가 놀라운 만한 번영을 누리게 되었지만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소수만 그러한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가 고대하 공산 사회는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풍요 속에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였다.

맹신(盲信)에 가까운 이성에 대한 인간의 믿음에 경고를 보낸 것은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였다. 그가 볼 때 근대의 특징은 합리성(rationality)의 증대에 있었다.¹⁸⁾ 특히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다시 말해 이성적 사고를 극대화하려는 경향인 ‘목적 합리성’(purposive rationality)은 ‘근대성’(modernity)과 같은 말로 치부되었다. 이러한 목적 합리성의 추구는 근대 이후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하지만 베버는 그것이 오히려 인간을 꼼짝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시 말해 목적 합리성의 극단적 추구는 인간을 쇠우리(iron cage)¹⁹⁾

17) 참조: 한스 쾅, 『가톨릭의 역사』, 배국원 역, 을유문화사, 2013², 205; 장 콩비, 『세계 교회사 여행』 2, 노성기·이종혁 역, 가톨릭출판사, 2012, 293.

18) 참조: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학문』, 전성우 역, 나남, 2017, 50-53; 앤서니 기든스, 필립 W. 서튼,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김봉석 역, 동녘, 2015, 56-59.

19)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덕영 역, 길, 2010², 365 참조.

에 가두게 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실제로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벌어진 홀로코스트와 핵무기 사용은 이성이 인간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성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인간의 믿음, 곧 이성을 통한 유한성 극복의 꿈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축적을 향한 자본주의적 열망은 이를 강하게 부채질하고 있으며, 인류는 이성의 통제를 받는 과학 기술이 안전하다는 속삭임에 안심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점에서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울리히 벡(Ulich Beck, 1944-2015)은 이렇듯 이성에 대한 맹신으로 곳곳에 위협이 많아지는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불렀다.²¹⁾ 위험 사회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 기술과 매뉴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로 인해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환경에 무해한 에너지를 무한정 제공해 줄 것만 같았던 원자력은 인류를 넘어 모든 하느님 창조물의 “공동의 집”²²⁾인 지구 전체를 위협하게 되었다.²³⁾ 하지만 아직도 원자력 관계자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인재(人災)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을 2중, 3중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원자력 발전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²⁴⁾

20) 나치는 더 많은 유대인을 효율적으로 학살하기 위해 당시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지그문트 바우만,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정일준 역, 새물결, 2013 참조.

21) 울리히 벡,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2006 참조.

22)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1항.

23)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사고 당시 바다에 유출된 방사능과 더불어 2023년부터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방류로 인해 오늘날까지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을 가하고 있다. 물론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방류가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사례라는 점에서 그것이 인류에게 초래할 결과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

24)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 http://www.kns.org:8116/index.php?mid=kns_board_01(검색일: 2024.9.4) 참조.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행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준섭, “후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유한한 지능을 초월하는 존재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인간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친근한 존재로 우리 곁을 찾아오고 있다. 바야흐로 하느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싶었던 원조(元祖)들의 욕망(창세 3,1-7 참조)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게 된 것이다. 이제 인간은 거침이 없는 듯 보인다. 자신의 지능을 초월한 존재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고 있기에 시황제(기원전 259-210)가 이루지 못한 불로장생(不老長生)도, 연금술사들이 원했던 부귀영화도 더 이상 꿈이 아닐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맹신, 곧 인공지능이 하느님을 대신하여 인간의 숭배를 받게 되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²⁵⁾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출현은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머지않은 미래가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여러 학자들은 그것이 인간의 심연 그리고 초월적인 영역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²⁶⁾ 예를 들어 불교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로봇은 해탈이 가능한가?’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 한 연구자는 인공지능 로봇의 해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과 집착을 필연적으로 타고나지만 인공지능 로봇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곧 인공지능 로봇은 욕망과 집착으로 인해 겪게 되는 인간의 번뇌와 고통을 겪을 수 없으므로 고통 뒤에 찾아오는 해탈 역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⁷⁾ 또한 인공지능은 가장 그럴듯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존재론적 목적의 뒷에 걸려 스스로를 기만하고, 자신이 제

쿠시마 원전사고의 문제점과 시사점”, 『일본학보』 104, 2015, 245-258 참조.

25) 이를 두고 유발 하라리(Yuval Harari, 1976-)는 ‘데이터교’가 도래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유발 하라리, 『호모 테우스: 미래의 역사』, 김명주 역, 김영사, 2017, 503-544 참조.

26) 참조: 고인석,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진 존재일 수 있는가?”, 163-187; 김태오, 앞의 책, 95-129; 최경석, 앞의 책, 71-85; 김도현, 앞의 책, 79-118; 서진호, 앞의 책, 165-192.

27) 한성자, 앞의 책, 7-34 참조.

공하는 데이터를 맹신하는 인간을 꿈쩍 못하게, 베버의 말대로 쇠우리에 갇히게 만들 수도 있다.²⁸⁾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인간의 이성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3. 교회의 경고: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

기술은 우리가 물질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주며, 위험을 줄이고, 노동을 단축하며, 삶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기술은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맡기신 땅을 경작하고 보존하라고 하신 하느님의 명령(창세 2,15 참조)에 부응하는 것입니다.²⁹⁾

교회는 인간이 이룩한 과학 기술의 진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것은 인류의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왔고,³⁰⁾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강화하는 행위³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 기술 가운데 어떤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 또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³²⁾ 이에 대해 요한 바오로 2세(Ioannes Paulus II, 1920-2005)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현대의 인간은 어느 때보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듯하다. 즉 인간의 손 나아가서는 인간 지성과 의지의 성향이 만들어낸 작업의 결과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 그리하여 인간은 갈수록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 인간은 자기가 만든 것들-물론 전부도 아니고 대부분도 아니지만 그 일부, 특히 인간의 재능과 창의성을 각별히 쏟은 것들-이 인간 자신에게 철저하게 반역(反逆)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자기파멸을 몰고 오는 수단이자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다.³³⁾

28) 대표적인 사례가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다. 할루시네이션은 인공지능이 인간이 원하는 답을 찾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럴 듯하게 말하는,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 실례에 대해서는 박태웅, 앞의 책, 46-48 참조.

29)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 69항.

30) 『찬미받으소서』 102-103항 참조.

31) 『찬미받으소서』 102-103항 참조.

32) 참조: 『사목 현장』 57항; 『인공 지능과 평화』 1항.

베네딕토 16세(Benedictus XVI, 1927-2022) 또한 기술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참된 발전은 “인간 활동의 인간적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마음”(『진리 안의 사랑』 70항)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³⁴⁾ 한 발 더 나아가 프란치스코 교황(Franciscus, 1936-)은 이성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다 분명하게 지적했다.

우리 세상은 엄청나게 넓고 다양하며 복잡적이어서 완전히 파악하고 분류할 수 없습니다. 가장 발전된 알고리즘의 도움으로도 인간 정신의 풍요로움은 결코 완전히 규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보장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통계적 근사치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실재는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계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계량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닿을 수 없는 영역은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³⁵⁾

이처럼 교회는 인간의 이성이 이룩해 낸 과학 기술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맹신은 인간의 참된 발전을 저해하며 오히려 인류 자신을 위협하게 된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과학 기술로도 모든 것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인간의 자유는 그것이 도덕적 책임에서 나오는 결정으로 기술의 매력에 응답할 때에만 참된 것”³⁶⁾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학

33) 요한 바오로 2세, 『인간의 구원자』 15항.

34) “‘기술적’ 세계관이 이제는 너무 지배적이어서 진리는 가능성일 뿐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 효용성과 유용성이 될 때, 발전은 자동적으로 부인됩니다. 참된 발전은 근본적으로 ‘실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의 열쇠는 기술적인 한계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인간 존재의 전체성 안에서 인간 활동의 인간적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진리 안의 사랑』 70항.

35) 『인공 지능과 평화』 4항.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이래, 인류는 불가지론(不可知論)을 핑계로 초월성(超越性)에 대한 인식을 애써 외면하며, 인간의 이성을 맹목적으로 신뢰해 왔다. 그러나 ‘불가지’라는 말 그대로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은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36) 『진리 안의 사랑』 70항.

기술은 인간이 윤리적으로 책임 있게 사용할 때 비로소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곧 참된 발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인공지능의 발전이 두드러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주목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연일 인공지능과 관련된 가르침을 내놓고 있다. 특히 그는 인공지능의 미래가 “기대와 위험 사이”³⁷⁾에 놓여있다고 평가하면서,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는 점에서 “그것이 가져올 혜택이나 해악이 그것의 사용에 달려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benefits or harm it will bring will depend on its use)³⁸⁾고 역설했다. 곧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인공지능이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활용될 수도 있고 인류를 위협에 빠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주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자율 살상 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s)와 같이 인간을 해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³⁹⁾ 다시 말해 인공지능은 인류의 “온전한 발전에 봉사하면서 평화와 공동선을 추구하도록”⁴⁰⁾ 윤리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은 오랜 시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지켜봐 왔던 교회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했다. 특히 『로마 백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위해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 아래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화한 것이었다.⁴¹⁾

37) 『인공 지능과 평화』 2항.

38) Francis, “Address of his Holiness Pope Francis”.

39) 참조: 『인공 지능과 평화』 3항; Francis, “Message of the Holy Father Francis to the Participants in the ‘AI Ethics for Peace’ Gathering”.

40) 『인공 지능과 평화』 2항.

41) 그 여섯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투명성(transparenty): 원칙적으로, AI 시스템은 설명 가능해야 한다. ② 포용성(inclusion): 모든 인류의 필요가 고려되어, 모든 이가 이익을 얻고 모든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고 발전시킬 가능한 최선의 조건을 제공받아야 한다. ③ 책임성(responsibility): AI의 사용을 고안하고 배치하는 사람들은 책임 있고 투명하게 일해야 한다. ④ 공정성(impartiality): 공정성과 인간 존엄성을 보

이처럼 교회는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복리와 공동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와 동시에 그것의 잘못된 사용이 불러올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곧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 기술은 인간의 책임 아래에서 윤리적으로 사용될 때,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Ⅲ.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선 한국 천주교회

사회 곳곳에 자리하기 시작한 인공지능은 조만간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한국 교회 또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며 지내는 또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 교회가 지닌 문화와 관습, 제도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사회와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한국 교회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본 II장의 논의를 토대로 현재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을 살펴봄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선 한국 교회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인공지능이 불러올 도전

1)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신앙 지식의 범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호하며, 편견을 가지고 만들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⑤ 신뢰성(reliability): AI 시스템은 믿을 수 있게 작동해야 한다. ⑥ 안전성과 사생활보호(security and privacy): AI 시스템은 안전하게 작동해야 하며, 사용자의 privacy를 존중해야 한다.”: 『인공지능 윤리를 위한 로마 백서』.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교회법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교회법과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익혀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데 활용될 수도 있고, 성서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성경 번역에 들어가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고해성사의 보속을 인공지능이 정해주는 등 일상적인 신자 생활의 영역에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될 수도 있다.⁴²⁾ 실제 바티칸 문서고에서는 방대한 분량의 역사적 자료들을 해독하고 분류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⁴³⁾ 한국 교회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려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전산담당사제회의는 ‘가톨릭 하상’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기도생활과 본당 교무금 납부, 미사 헌금 등 신앙 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가톨릭 하상에 도입된 인공지능 챗봇은 현재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추후 『한국가톨릭대사전』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신자들이 갖게 될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⁴⁴⁾ 이웃 종교계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선교 활동을 펼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신교에서는 ‘초원’이라고 불리는 ‘주님 AI’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는데, 특히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목회자에게 묻지 못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청년

42) 김도현, 앞의 책, 105-106 참조.

43) 유영준, “바티칸 서고 비밀 풀리나 ... AI 통해 사료 해독 추진”, 『연함뉴스』(2018. 5.2), <https://www.yna.co.kr/view/AKR20180502154700009>(검색일: 2024.9.11) 참조.

44) 이승훈, “가톨릭신자 앱 ‘가톨릭 하상’ ... 본당 사무실 업무 손안에”, 『가톨릭신문』(2023.4.9), 2 참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 내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을 상상해 본다면 인공지능은 방대하고 어렵지만 한 신학 지식과 교리 내용을 아주 빠르고 손쉽게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위해 강론을 준비하는 성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바쁜 일상 혹은 관계적 부담감 때문에 쉽사리 성직자를 찾아가 신앙 생활에 대해 물을 수 없는 신자들에게 기초적인 신앙의 길잡이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은 교회 내 책임자들에게 한국 사회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사목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한국 교회의 다양한 행정 사무를 효율화 하고 다양한 교회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연락할 수 있게 도울 수도 있다.

들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불교계에도 이어져 ‘스님 AI’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도 했다.⁴⁵⁾

이렇듯 인공지능은 교회 안의 여러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역대 교황들을 비롯한 교도권이 지속하여 강조하듯, 교회 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구성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곧 인공지능 기술이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친교를 저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회 구성원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다양한 신학 지식과 교리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할 길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그럴듯한 말”을 내놓도록 학습⁴⁶⁾한 인공지능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가능성(할루시네이션)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정교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너무나 쉽고 그럴듯하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한 번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기도와 성사 거행에 정성을 다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강론이나 교리교육을 하는 등 하느님에 관해 가르치는 직무에 소홀”⁴⁷⁾한 성직자가 많다는 한국 교회의 자기반성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향후 한국 교회의 성직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인공지능이 써주는 강론에 의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허황되게 들리지만은 않는다.⁴⁸⁾ 문제는 인공지능이 써 준 강론이 교회의 가르

45) 이항휘, “‘교회 갈 필요없죠’ … ‘AI주님’에 빠진 2030”, 『매일경제』(2023.11.26), <https://www.mk.co.kr/news/culture/10883891>(검색일: 2024.9.10) 참조.

46) 박태웅, 앞의 책, 48.

47)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2022), <https://www.cbck.or.kr/Documents/Other/20221041?category=K5170>(검색일: 2025.3.8) II, 8.

48) 필자는 논문을 작성하면서 챗GPT에게 ‘2024년 9월 11일 연중 제23주간 수요일 미사 강론 써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챗GPT는 곧바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강론을 작성하여 필자에게 보여주었다. 챗GPT가 인용한 복음은 실제 2024년 9월 11일 미사에 사용되는 루카 6,20-26, 곧 예수님의 산상설교였다. 또한 챗

침과 일치하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재차 말하건대, 인공지능은 스스로 할루시네이션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인공지능의 거짓말)이 워낙 정교하여 오류를 찾아내기가 힘들다. 만약 이것을 강론을 준비하는 성직자가 걸러내지 못한다면, 미사 중에 선포되는 복음과 이에 대한 강론이 자칫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의 가능성은 신자들 사이에서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례성사 이후 강론 이외에는 교육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⁴⁹⁾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신학 지식과 교리 내용을 신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교 계통의 유사 종교들이 천주교 신자를 포섭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들은 천주교의 외피를 쓰고 신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종교로 신자들을 포섭하기 때문이다.⁵⁰⁾ 이처럼 내용만 놓고 보면,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내용을 진리인 것처럼 보여주는 유사 종교와 할루시네이션을 범하는 인공지능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한발 더 나가 보면 천주교에 적대적인 갈라진 형제들이나 유사 종교 단체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천주교 교리를 비틀어 놓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PT는 해당 복음에 대한 강론의 주제를 “1. 행복 선언: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 2. 굶주리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 3. 불행 선언: 부유한 사람들, 웃고 있는 사람들 / 4.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 결론”으로 구성하여 알기 쉽게 정리해주었다. 한편 2023년에 3월에 조사된 한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 목회자 가운데 20%가 목회와 설교를 위해 챗GPT를 사용해 보았으며(챗GPT 사용 경험자 가운데에서는 42%), 그들 중 챗GPT가 설교 준비를 위한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60%였다. 또한 앞으로 설교 준비에 챗GPT가 사용될 것이라는 응답은 79%에 달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챗GPT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넘버즈』 186, 2023, 1-12 참조.

- 49)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울대교구 시노드 종합 문서: 성령 안에서 함께 가는 교회를!”(2022), <https://synod.or.kr/synod0108>(검색일: 2025.3.8) 22항.
- 50) 양정우, “교황까지 끌어들이는 위장술 ... 딱 걸린 유사종교의 마수”, 『연합뉴스』(2020.3.6),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5190700005>(검색일: 2024.9.11) 참조.

2) 공감과 위로, 하느님 체험 없는 교회에 대한 거부

종교 개혁자들은 중세 교회가 부패한 이유를 구원에 대한 독점에 있다고 보았다. 교회는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자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것이 부패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사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만인제사장설’이다.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세례로 신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사제(제사장)이며, 그리스도께서 사제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사제로서 세상 속에서 사제직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⁵¹⁾ 이를 위해 그들은 ‘오직 신앙, 오직 은총, 오직 성경’(sola fide, sola gratia, sola scriptura)을 외쳤다. 그들의 주장에 공감한 사람들은 사제 없이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시작했다.

물론 천주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 현장』(*Lumen Gentium*, 1964)을 통해 “세례 받은 사람들은 새로 남과 성령의 도유를 통하여 신령한 집과 거룩한 사제직으로 축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신령한 제사를 바치며 그들을 어두운 데에서 당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불러 주신 분의 능력을 선포한다(1베드 2,4-10 참조)”⁵²⁾고 선언했다. 곧 신자들은 세상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극기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직무 사제직을 맡아 하느님 백성(*populus Dei*)을 모으고 다스리며 그들과 함께 성찬의 희생 제사를 봉헌하는 이들도 존재한다.⁵³⁾ 이로써 모든 천주교 신자들은 교회(사제)의 보살핌 아래 하느님과 소통하며 자신을 구원의 산 제물로 봉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51) 양금희, “루터의 만인제사장 개념을 통해서 본 평신도교육 개혁”, 『長神論壇』 49/1, 2017, 67-78 참조.

52) 『교회 현장』 10항.

53) 『교회 현장』 10항 참조.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자립적, 자기주도적 신앙생활 태도”⁵⁴⁾를 갖추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공동체 정신이 부족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 자기 관심사 말고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⁵⁵⁾가 많다며 자성하고 있다. 또한 “본당에서 신자들 대부분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크고 대화를 피한다”⁵⁶⁾고 보면서, 그것은 ‘사목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한다. 신자들은 “성직자가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평신도와 사목자 간의 거리감”⁵⁷⁾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본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parrhesia) 어려워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능동적으로 신앙 생활을 이어나가기보다는 성직자가 요구하는 것만 수동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자들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이며 타성에 젖어 전례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⁵⁸⁾는 여러 교구의 증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⁵⁹⁾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수동적인 신앙 생활을 이어가던 신자들의 교회 이탈을 가속화시켰다. 전대미문의 공동체 미사 중단은 습관적으로 성당을 다니던 신자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해주었다. 곧 팬데믹을 핑계로 성당에 발길을 끊어버린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던 것이다.⁶⁰⁾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일 미사 참석에 대한 의무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1.7%에 달했다.⁶¹⁾ 그리고 그것은 현실로 드러

54)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II, 2.

55)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II, 3.

56)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II, 2.

57)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II, 3.

58)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II, 4.

59)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II, 2-4 참조.

60) 김선필, “시노드 교회를 지향하는 한국 천주교회의 도전과 희망: 종교 사회학적 접근”, 『가톨릭신학과사상』 87, 2022, 184 참조.

61) 경동현 외 3인, 『팬데믹 시대의 가톨릭교회: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는 한국천주교회에 관한 조사보고서』, 우리신학연구소, 2020, 19 참조.

났다. 주교회의 통계에 따르면, 신자들의 주일 미사 참여율은 팬데믹 초기였던 2019년에 18.3%였지만 팬데믹 터널을 지나던 2021년에는 8.8%, 2022년 11.8%, 2023년에는 13.5%로 참여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⁶²⁾ 물론 통계상 주일 미사 참여율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⁶³⁾

이처럼 한국 교회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보다 책임과 의무를 더욱 중요시하는, 다시 말해 기쁨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세상은 사람들의 욕망과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기술 경쟁에 한창이다. 마치 액체가 비어있는 공간을 구석구석 채우듯, 자본의 힘으로 동기화된 기술 경쟁은 우리 사회의 비어 있는 공간을 서슴없이 채워나가고 있다. 그것은 종교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통해 신자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들의 욕망과 필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것을 통해 이윤을 창출해내기 시작했다. 곧 신자들은 교회(사제)로부터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알려준 콘텐츠를 통해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교회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신자들 앞에 찾아온 것이다.

실제로 이웃 종교들에서는 인공지능이 기존 종교인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례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주님 AI’, ‘스님 AI’ 애플리케이션의 출현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 외에도 독일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개신교계의 성바울 교회에서는 챗GPT가 40여 분간 설교와 기도, 찬송 등 예배를 이끄는 일도 등장했다.⁶⁴⁾

62)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3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2, 3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3, 3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36.

63) 이승환, “[한국교회 통계로 본 사목적 시사점(4)] 팬데믹과 성사 활동의 회복”, 『가톨릭신문』(2024.5.9),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40508500019>(검색일: 2024.11.5) 참조.

바야흐로 인공지능 성직자가 종교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진정한 공감과 영적인 위로를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아직까지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⁶⁵⁾ 그러나 성당에 나가서도 그러한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없다면, 굳이 성당에 나가는 수고를 들이기보다 인공지능이 소개해 주는 콘텐츠를 집에서 편안히 접하는 신자들이 많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변화가 일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성사’는 천주교 신앙 생활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제를 필요로 한다. 또한 성사는 제병과 포도주, 소리 내어 합송하는 기도문과 신앙 고백 등 물질적인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신자들은 성사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예상이 들어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앙 생활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 교회는 더 이상 신앙 생활의 요람이 되지 못하고, 단지 성사가 거행되는 장소, 비유하자면 ‘성사 자판기’로 그 의미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⁶⁾

이점에서 인공지능의 등장은 교회의 본질적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특히 교회의 가시적 형태이자 신앙 생활의 터전인 본당 공동체는 어떤 조직이나 지역 또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오로지 “‘형제애로 한 마음을 이룬 하느님의 가족’이며, ‘형제애가 감돌고 따듯이 사람을 맞아 주는 큰집’이고, ‘신자들의 공동체’”⁶⁷⁾로서, ‘그리스도의 성사’⁶⁸⁾ 곧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직적이며 닫힌 구조’로 체험되고 인

64) 이주빈, “AI 목사님 ‘설교하게 돼 영광’ ... 300명 참석한 챗GPT 예배”, 『한겨레』 (2023.6.1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95858.html (검색일: 2024.9.10) 참조.

65) 참조: 전대경, 앞의 책 10-50; 김도현, 앞의 책, 104-105.

66) 실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미사는 성당에서 참례하고, 강론은 유튜브(YouTube)로 본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평신도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67) 요한 바오로 2세, 『평신도 그리스도인』 26항.

68) 『교회 현장』 1항 참조.

식”⁶⁹⁾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 신자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을까? 교회보다 인공지능이 소개해 주는 콘텐츠가 더 많은 공감과 위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사적 효과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어느새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교회의 대응: 시노드 교회의 실현

1) 좋은 질문 던지기, 끊임없이 공부하고 참여하기

소설가 황석영(1943-)은 지난 2024년 8월 24일 방송된 MBC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했다. 여기서 그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박사 10명을 데리고 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인공지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부터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많이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⁷⁰⁾ 이러한 그의 통찰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가짜 신앙 지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한국 교회 구성원들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온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직자들은 교구 내에서 ‘자신의 발언이 존중받고 경청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반대 세력의 저항을 불러일으킬까 두려워 침묵할 때가 많고, 평신도들은 자신의 용기 있는 발언은 지적과 질타로 되돌아온다고 생각한다.’⁷¹⁾ 이렇듯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크고 대화”⁷²⁾ 피하는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과연 좋은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

한편 한국 교회는 유교 문화권에 속한 한국 사회의 주지주의적

69)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II, 8.

70) MBClife, “황석영 작가가 말하는 AI 시대에 아이들이 순수 창작물을 읽어야 하는 이유” (2024.8.24), <https://www.youtube.com/watch?v=P3tKn1JuFBg> (검색일: 2024.11.6) 참조.

71)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II, 3 참조.

72)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II, 2.

경향⁷³⁾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답, 곧 신학의 토착화보다 교회 중심부의 논의를 주로 이식해 온, 그래서 ‘로마보다 더 로마적인 교회’라는 자조적인 말을 서로 주고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다양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영향 속에서 교회 구성원들은 대화와 소통을 가로막는 “교회 안팎의 보이지 않는 장벽”⁷⁴⁾ 앞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로운 질문과 이에 대한 토의가 오가는 분위기는 어찌 보면 한국 교회에 낯설어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오늘날, 교회 구성원들은 더 이상 질문하고 토의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질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인공지능의 등장을 계기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감쪽같은 거짓 말로부터 자기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교회의 일에 참여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에게 좋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신앙 생활에 유익한 답변을 얻어 내고 잘못된 답변은 지혜롭게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좋은 질문하기에 익숙해지면 교회 안에서도 질문하고 함께 논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인공지능과의 소통 경험을 통해 좋은 질문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교회 구성원 전반의 질적 향상과 소통 강화를 추동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는 오히려 성직자의 역할을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신자들은 범람하는 정보들 사이에서 올바른 신앙 지식을 분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직자들은 그들에게 신앙 생활의

73) 참조: 윤사순, “성리학(性理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9308>(검색일: 2024.9.11); 오세일, “교육 패러다임과 영성교육: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참여영성의 과제”, 『신학과철학』 31, 2017, 162-163.

74)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II, 6.

길잡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다년간의 양성 과정을 거치고, 교회로부터 검증을 받은 성직자들은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다양한 신앙 지식들을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분별하고, 이를 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성직자의 역할은 ‘검열’과 ‘통제’가 아닌 ‘식별’과 ‘봉사’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성직자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사 종교와 인공지능까지 합세하여 만들어내는- 천주교의 외피를 쓴 유사신학과 유사 교리를 걸러내고, 신자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에 입각한 올바른 신앙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직자들의 노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목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곧 인공지능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내놓는 정보는 성직자들이 사목 현장에서 바치게 될 시간과 노력을 줄여 줄 수 있다. 이 점에서 성직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인공지능은 성직자를 대체하는 AI 성직자가 아니라 ‘사목 비서’(assistant to the pastor)⁷⁵⁾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 교회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직자들이 신자들의 질문을 귀담아 듣고, 신자들은 성직자의 응답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만 한다. 이는 인공지능을 인간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에도 부합된다. 교회 구성원들이 소통하며 함께 동행하는 분위기 안에서 인공지능이 교회와 인간의 주인으로 등장할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보편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시노드 교회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의 실행 단계에 따라 진행된 교구 단계에서의 모임들은 성직자와 신자들이 서로 질문하고 경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⁷⁶⁾ 결국 인공지능 시

75) 전대경, 앞의 책, 41 참조.

76) 참조: 이종경, “직접 부딪히며 찾아가는 시노달리타스의 길: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의 의정부교구 여정”, 『가톨릭평론』 36, 2022, 66-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앞의 자료 11-12항; 천주교 춘천교구,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6차 정기 총회 의안집”(2022),

대에 발맞춰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곧 잘 듣고, 잘 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교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시노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과 다르지 않다.

2) 친교의 공동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1789년에 벌어진 혁명 당시 프랑스 시민들은 모든 인간이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살아간다고 선언했다.⁷⁷⁾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존엄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들의 신념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갔고, 오늘날 『세계인권선언』 등에 인용되며⁷⁸⁾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동등하게 교육받고 동등한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능력주의(meritocracy)⁷⁹⁾로 이어지게 되었고, 교육을 통한 상층 사회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여기에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phalia*, 1648) 이후 출현한 근대 국가들은 급격히 발달하기 시작한 자본주의 체제에 적합한 노동자와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을 만들어내기 위해 교육 제도를 확대시켜 나갔다.⁸⁰⁾ 이후 근대인의 능력은 지식의 습득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을 통해 측정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지능을 인간의 능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인류는 세계 최고 프로 기사들과의 바둑 대결에서 연이어 승리하는 알파고(AlphaGo)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지능이 자신

file:///C:/Users/admin/Downloads/2022Instrumentum%20Laboris%20(1).pdf(검색일: 2025.3.8) 5항.

77)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1789.8.26), <http://davincimap.co.kr/davBase/Source/davSource.jsp?SourID=SOUR001166>(검색일: 2025.3.8) 제1조 참조.

78) 국제 연합,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12.10.), file:///C:/Users/admin/Downloads/%EC%84%B8%EA%B3%84%EC%9D%B8%EA%B6%8C%EC%84%A0%EC%96%B8(%EA%B5%AD%EB%AC%B8)%20(1).pdf(검색일: 2025.3.8) 제1조 참조.

79) 손준중, “교육논리로서 ‘능력주의’ 재고”, 『한국교육학연구』 10/2, 2004, 135-153 참조.

80) 김신일·강대중,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2022^o, 129-139 참조.

의 모상인 인공지능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적어도 지적 분야 안에서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능력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시대에서 지능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위상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지능을 대체할 인간의 능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타인과의 공감 능력일 가능성이 높다.⁸¹⁾ 그것은 인공지능이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인공지능 자체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통해 소개하는 휴먼 스토리(human story)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유리하게 적응할 수 있는 집단은 다름 아닌 교회이다. 교회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친교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이신 창조주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다. 따라서 공동체 생활은 인간을 특징짓는 핵심 요소이며 인간은 공동선을 추구할 때 공동체의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⁸²⁾ 특히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며 친교를 이름으로써⁸³⁾ 창조주 하느님께서 바라셨던 인류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오늘날 교회는 이와 같은 친교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초기 교회가 보여주었던 동행(同行)의 정신, 곧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교회는 인공지능이 불러올 변화, 곧 지능이 아닌 타인과의 공감이 강조되는 시대에 최적화된 ‘인간 집단’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앞서 살펴보았듯 한국 교회는 아직 그 준비가 덜 되어 있다.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한국 교회는 1784년에 설립된 이래로

81) 이길용, 앞의 책, 93-94 참조.

82)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149-150항 참조.

83) 『교회 헌장』 7항 참조.

백여 년간의 박해를 견뎌내야 했고, 일제의 탄압 아래 숨죽이고 있어야 했으며,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에 대응하고,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 속에서 세상과 함께 아파하고 숨 쉬어야만 했다.⁸⁴⁾ 이처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생존해야만 했던 한국 교회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왔다. 이로 인해 교회 보호, 교세 확장 등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교회의 본질적 의미, 공동체의 중요성과 같은 내적인 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 보인다. 지난 2014년에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도 한국 주교단 앞에서 이 점을 상기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언자적인 복음의 증거는 한국 교회에 특별한 도전들을 제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번영하였으나 또한 매우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적인 사회의 한가운데에서 살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목자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준보다도 기업 사회에서 비롯된 능률적인 운영, 기획, 조직의 모델들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성공과 권력이라는 세속적 기준을 따르는 생활양식과 사고방식까지도 받아들이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 세상의 지혜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잃어 헛되게 된다면, 우리는 불행할 것입니다! (1코린 1,17 참조)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 사제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러한 온갖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성령을 질식시키고, 회개를 무사안일로 대체하고, 마침내 모든 선교 열정을 소멸시켜 버리는 그러한 정신적 사목적 세속성에서 하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빕니다(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93-97항 참조).⁸⁵⁾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러한 염려는 비단 주교와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 교회는 시노드 과정을 통해 “기도와 성사 거행에 정성을 다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강론이나 교리 교육을 하는 등 하느님에 관해 가르치는 직무에 소홀”⁸⁶⁾한 성직자

84) 김선필, 『한국 천주교회사, 기쁨과 희망의 여정』, 눌민, 2021 참조.

85) 프란치스코, “한국 주교들과 만남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연설”(2014.8.14),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ko/speeches/2014/august/documents/papa-francesco_20140814_corea-incontro-vescovi.html(검색일: 2024.9.13).

86)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II, 8.

들, “형식적이고 의무적이며 타성에 젖어 전례에 참여하는”⁸⁷⁾ 신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찰했다. 이처럼 성직자와 신자들이 형식적인 의무 수행에만 집중하고, 그 안에 담긴 친교의 정신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한국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교회 안에서 거행되는 전례와 행사 그리고 기도 행위가 실적으로 잡히고, 신앙 생활은 교회법과 성당 내 관습이나 인간관계로부터 통제받게 되며, 미사 참례자·입교자·주일 봉헌·교무금 등이 숫자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하느님 백성인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공감과 위로, 하느님 체험을 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 점에서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 안에 훌쩍 찾아온 인공지능 기술은 교회로부터 공감과 위로를 받지 못한 신자들이 성당 대신 찾게 될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비록 인간만이 줄 수 있는 공감과 위로를 온전히 전해주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에서 받게 되는 냉담과 무관심보다 나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공감과 위로를 주고받으며 그 안에서 하느님 체험을 할 수 있는 교회, 곧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은 친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 교회가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라 할만하다. 사실 그것은 인공지능이 불러온 사회 변동에 대한 적응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 교회가 돌아가야 할 초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체로서의 교회, 친교 공동체로서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되찾는 일과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교회가 적응하는 일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며, 그 안에서 살아있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도반(道伴)들이 있는데, 그만큼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없는 AI 성직자를 찾아갈 하느님 백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더욱이 인공지능 시대에 올바른 교회

87)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II, 4.

정신을 지니기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교회의 일에 참여하며 좋은 질문을 던지고 함께 토의하는 과정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한국 교회가 공감과 위로의 공동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하느님의 은총으로 한국 교회 안에는 교회를 친교 공동체로 만들려는 다수의 하느님 백성이 존재한다. 그들은 성령께서 한국 교회 안에 뿌려 놓으신 쇠신의 씨앗들이다.⁸⁸⁾ 이제 한국 교회는 그 씨앗들이 풍성하게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은 한국 교회가 교회 다움을 되찾으라고 불러 주신 하느님의 초대일지도 모르겠다.

IV. 나가는 말

아직 우리 일상에서 인공지능은 소수의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의 전유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한 인류 사회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전자 제품들과 온라인 서비스 안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인공지능과 이미 맞닥뜨리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아직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인간의 모습을 하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인공지능을 보고 나서야 우리는 진짜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는 점을 인정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알파고와 챗GPT는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 있음을 인류에게 알려주었다. 알파고는 고도의 사고력이 요구되는 바둑을 통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욱 뛰어난 사고력을 가질 수 있음을, 챗GPT는 멀게만 느껴졌던 인공지능이 인간과 더불어 대화하고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인간의 모상, 곧 초인

88) 김선필, “시노드 교회를 지향하는 한국 천주교회의 도전과 희망: 종교 사회학적 접근”, 199-204 참조.

류의 등장을 가능하게 할 유력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실 존재론적으로 유한성을 지닌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 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는 그것이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깊고 오래된 욕망임을 잘 보여준다. 이를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성을 계발시켜 왔고, 계몽주의와 산업 혁명 그리고 시민 혁명으로 촉발된 근대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이 전면적으로 분출된 시기였다. 그리고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이성이 유한한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실제 그것은 인간 사회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복리 증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홀로코스트와 핵무기는 그것이 도리어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통해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꿈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인공지능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꿈의 기술로 취급받고 있다.

교회는 이러한 과학 기술이 인류의 공동선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인정했다. 반면 그것이 불러온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교회는 과학 기술이 인간의 통제 아래에서 활용될 때, 비로소 인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창조해 낸 그 어떤 과학 기술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단언함으로써 이성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적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그것이 인간의 통제 아래 윤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한국 교회도 인공지능 기술을 조금씩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것이다. 더욱이 인공지능 기술은 방대한 자료를 빛의 속도로 분석하여 답을 내놓음으로써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신학 지식과 교리를 교회 구성원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할루시네이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내놓는 교회 정보들은 그것의 진위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 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교회 구성원들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그것의 올바른 사용은 절실히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웃 종교에서 인공지능이 종교인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듯이 신자들은 교회로부터 얻지 못한 공감과 위로를 인공지능을 통해 얻고자 할 수 있다. 이렇듯 인공지능은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에 맞게 구성원들의 욕구를 채워줄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것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다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구성원들이 좋은 질문을 던지고 서로 토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의 질문(요구)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교회의 일에 참여하고 교회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이렇듯 인공지능의 출현은 교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노드 교회를 지향하는 한국 교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성직자 역할의 중요성을 오히려 부각시킨다. 범람하는 유사신학과 교리 안에서 성직자는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정보들을 식별하고 그것을 신자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성원들이 교회의 일에 참여하고 공부하며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토의하는 과정은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과정, 그리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하며 그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승화될 수 있다. 그것은 교회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며 초대 교회가 모범으로 보여준 친교 공동체로 돌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한국 교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교회의 존재 이유, 곧 본질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성원 모두가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공부하며 질문하고 토의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공감하며 위로 받는 공동체, 그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돌아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성사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보편 교회가 교회 쇠신의 원리로 강조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 정신과도 부합된다.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동행하며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을 걷는 것은 “‘시노드적인 교회’의 ‘구성적 차원’”⁸⁹⁾이며,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 투 고 일: 2024. 9. 24
수 정 일: 2024. 11. 6

심 사 일: 2024. 10. 20
계재확정일: 2025. 3. 10

89)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5항.

참 고 문 헌

1. 교회 문헌

- 『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199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².
-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La Sinodalità nella Vita e nella Missione della Chiesa*, 2018), 박준양·안소근·최현순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 교황청 문화평의회, 『4차 산업혁명과 인류의 미래』(*Culture e Fede XXVI*, 2018),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9.
- 교황청 생명학술원, 『인공지능 윤리를 위한 로마 백서』(*Rome Call for AI Ethics*, 2020)[= 『인격주의 생명윤리』 11/1, 정재우·박은호 역, 2021, 224-229].
-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주린 사회 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200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².
-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is Laici*, 198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 _____, 회칙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 197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².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현장』(*Lumen Gentium*, 196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².
- _____, 『사목 현장』(*Gaudium et Spes*, 196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².
-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울대교구 시노드 종합 문서: 성령 안에서 함께 가는 교회들!”(2022), <https://synod.or.kr/synod0108>(검색일: 2025.3.8).
- 천주교 춘천교구,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6차 정기 총회 의안집”(2022), [file:///C:/Users/admin/Downloads/2022Instrumentum%20Laboris%20\(1\).pdf](file:///C:/Users/admin/Downloads/2022Instrumentum%20Laboris%20(1).pdf)(검색일: 2025.3.8).
- 프란치스코, 『인공 지능과 평화』(2023.12.8), <https://www.cbck.or.kr/Documents/Pope/20230639?page=3>(검색일: 2025.3.8).
- _____, “한국 주교들과 만남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연설”(2014.8.14),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ko/speeches/2014/august/documents/papa-francesco_20140814_corea-incontro-vescovi.html(검색

일: 2024.9.13).

- _____,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2022), <https://www.cbck.or.kr/Documents/Other/20221041?category=K5170>(검색일: 2025.3.8).
-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
-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2.
-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3.
- _____,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 Francis, “Address of his Holiness Pope Francis”(2024.6.14),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speeches/2024/june/documents/20240614-g7-intelligenza-artificiale.html>(검색일: 2024.9.5).
- _____, “Message of the Holy Father Francis to the Participants in the ‘AI Ethics for Peace’ Gathering”(2024.7.10),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messages/pont-messages/2024/documents/20240710-messaggio-ai-ethics-forpeace.html>(검색일: 2024.9.10).

2. 단행본

- 경동현 외 3인, 『팬데믹 시대의 가톨릭교회: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는 한국천주교회에 관한 조사보고서』, 우리신학연구소, 2020.
- 기든스, 앤서니 / 서튼, 필립 W.,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김봉석 역, 동녘, 2015.
- 김선필, 『한국 천주교회사, 기쁨과 희망의 여정』, 눌민, 2021.
- 김신일·강대중,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2022⁶.
- 바우만, 지그문트,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정일준 역, 새물결, 2013.
- 박태웅, 『박태웅의 AI 강의』, 한빛비즈, 2023.
- 배영임·김유나, 『인공지능의 윤리적 쟁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기연구원, 2022.
- 베버, 막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덕영 역, 길, 2010².
- _____, 『직업으로서의 학문』, 전성우 역, 나남, 2017.
- 백, 올리히,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2006.
- 콩비, 장, 『세계 교회사 여행』 2, 노성기·이종혁 역, 가톨릭출판사, 2012.

퀵, 한스, 『가톨릭의 역사』, 배국원 역, 을유문화사, 2013².

하라리, 유발,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 김명주 역, 김영사, 2017.

3. 정기 간행물

고인석,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법”, 『황해문화』 93, 2016, 251-263.

_____,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진 존재일 수 있는가?”, 『철학』 133, 2017, 163-187.

김건우, “인공지능 법인격 논쟁 다시 보기: 철학적 분석”, 『법철학연구』 26/3, 2023, 205-246.

김도현, “AI 시대의 도래와 교회의 미래: AI의 현실에 관한 분석과 교회에 끼칠 영향 진단”, 『神學展望』 216, 2022, 79-118.

김병석, “인공지능(AI) 시대, 교회 공동체 성립요건 연구: 예배와 설교 가능성성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40, 2016, 9-41.

_____, “급변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시대의 예배와 설교의 위치”, 『신학과 실천』 59, 2018, 153-182.

김선필, “시노드 교회를 지향하는 한국 천주교회의 도전과 희망: 종교 사회학적 접근”, 『가톨릭신학과사상』 87, 2022, 168-222.

김영례,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 『철학논총』 91, 2018, 105-128.

김영진, “인공지능, 종교적 명상, 그리고 마음의 지향성: ‘명상하는 AI’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 『철학·사상·문화』 24, 2017, 1-27.

김종용·박문기, “인공지능(AI)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선불교의 윤리적 접근”,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84, 2020, 337-367.

김준섭,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문제점과 시사점”, 『일본학보』 104, 2015, 245-258.

김태오,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인간의 인격개념 사용 문제: 신학적 인간학의 인격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가톨릭신학』 31, 2017, 95-129.

노상욱,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의 역할”, 『이성과신앙』 65, 2018, 7-21.

목광수,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격 개념”, 『철학논총』 90, 2017, 187-212.

목회데이터연구소, “챗GPT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사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넘버즈』 186, 2023, 1-12.

문의빈, “사상의 자유의 재조명: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형성과정의 조종 가

- 능성을 중심으로”, 『公法研究』 52/3, 2024, 101-126.
- 박정식, “인공지능과 인간의 마음”, 『코기토』 86, 2018, 195-218.
- 박현신, “인공지능 혁명(AIR)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설교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57, 2020, 82-115.
- 방중우, “『AI 윤리에 관한 로마의 호소』에 나타난 윤리적 원칙들에 대한 고찰”, 『인격주의 생명윤리』 12/1, 2022, 29-69.
- 서진호, “폴 틸리히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AI 설교의 가능성과 한계”, 『신학논단』 113, 2023, 165-192.
- 손준종, “교육논리로서 ‘능력주의’ 재고”, 『한국교육학연구』 10/2, 2004, 135-153.
- 신상규, “인공지능은 자율적 도덕행위자일 수 있는가?”, 『철학』 132, 2017, 265-292.
- 신은화, “AI 시대 인간의 정체성과 소외”, 『동서인문』 15, 2021, 5-42.
- 양금희, “루터의 만인제사장 개념을 통해서 본 평신도교육 개혁”, 『長神論壇』 49/1, 2017, 65-91.
- 오세일, “교육 패러다임과 영성교육: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참여영성의 과제”, 『신학과철학』 31, 2017, 157-186.
- 옥장흠, “인공지능 챗GPT의 교육목회에 효율적인 활용방안”, 『기독교교육논총』 78, 2024, 57-85.
- 유정원,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체험 앞에서”, 『가톨릭평론』 31, 2021, 24-32.
- 이길용, “대화형 인공지능 시대 교회의 역할”, 『신학과 선교』 66, 2023, 77-103.
- 이상욱, “인공지능과 실존적 위험: 비판적 검토”, 『인간연구』 40, 2020, 107-136.
- 이상현, “붓다의 시선으로 본 인공지능”, 『평화와종교』 2, 2016, 151-170.
- 이성민, “인공지능 시대의 예배와 설교”, 『神學과世界』 99, 2020, 251-283.
- 이재현, “인공지능에 관한 비판적 스케치”, 『마르크스주의 연구』 13/3, 2016, 12-43.
- 이종경, “직접 부딪히며 찾아가는 시노달리타스의 길: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의 의정부교구 여정”, 『가톨릭평론』 36, 2022, 66-74.
- 이충현, “인공지능의 자아 정체성 문제를 통해 본 인지과학과 불교의 ‘자아 없음’ 입장 비교”, 『인문과학연구』 52, 2024, 183-211.
- 임명성, “인공지능이 침범하지 말아야 할 인간의 고유영역에 대한 탐색”,

『로고스경영연구』 18/4, 2020, 159-192.

임준섭·함영주, “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생들의 인식 연구와 기독교교육학적 의의”, 『기독교교육논총』 61, 2020, 233-262.

장보철, “인공지능에 대한 목회신학적 고찰”, 『신학과 실천』 59, 2018, 247-267.

전대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목사의 가능성과 그 문제: 마음, 영혼, 혹은 ‘의식적 의지’의 본질을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32, 2019, 10-50.

정경일, “이마고 호미니스(Imago Hominis): AI 시대의 고통과 영성”, 『신학과철학』 45, 2023, 119-143.

조성문, “미래 사목 대안: 메가트렌드 안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모색”, 『누리와말씀』 49, 2021, 167-197.

최경석, “인공지능이 인간 같은 행위자가 될 수 있나?”, 『생명윤리』 21/1, 2020, 71-85.

최성훈, “인공지능과 한국교회: ChatGPT를 중심으로”, 『ACTS 신학저널』 58, 2023, 165-192.

한성자, “인공지능(AI) 로봇의 해탈 가능성: ‘인간은 생각하는 기계인가’에 대한 불교적 관점”, 『한국불교학』 85, 2018, 7-34.

황병준·박도훈,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에 대한 미래교회 대응방안 연구”, 『신학과 실천』 68, 2020, 811-837.

4. 신문 기사

양정우, “교황까지 끌어들이던 위장술 ... 딱 걸린 유사종교의 마수”, 『연합뉴스』(2020.3.6),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5190700005>(검색일: 2024.9.11).

유영준, “바티칸 서고 비밀 풀리나 ... AI 통해 사료 해독 추진”, 『연합뉴스』(2018.5.2), <https://www.yna.co.kr/view/AKR20180502154700009>(검색일: 2024.9.11).

이승훈, “가톨릭신자 앱 ‘가톨릭 하상’ ... 본당 사무실 업무 손안에”, 『가톨릭신문』(2023.4.9), 2.

이승환, “[한국교회 통계로 본 사목적 시사점(4)] 팬데믹과 성사 활동의 회복”, 『가톨릭신문』(2024.5.9),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40508500019>(검색일: 2024.11.5).

이주빈, “AI 목사님 ‘설교하게 돼 영광’ ... 300명 참석한 챗GPT 예배”,

『한겨레』(2023.6.1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95858.html(검색일: 2024.9.10).

이향휘, “교회 갈 필요없죠’ … ‘AI주님’에 빠진 2030”, 『매일경제』(2023.11.26), <https://www.mk.co.kr/news/culture/10883891>(검색일: 2024.9.10).

정지주, “푸틴 ‘군수산업 다음 차레는 AI 도입’”, 『KBS뉴스』(2024.2.2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7717>(검색일: 2024.9.4.).

Sherwood, Harriet, “Vatican enlists bots to protect library from onslaught of hackers”, *The Guardian*(2020.11.8),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nov/08/vatican-enlists-bots-to-protect-library-from-on-slaught-of-hackers>(검색일: 2024.9.4).

Reuters, “OpenAI’s weekly active users surpass 400 million”, *Reuters* (2025.2.21), <https://www.reuters.com/technology/artificial-intelligence/openais-weekly-active-users-surpass-400-million-2025-02-20/>(검색일: 2025.3.8).

5. 기타

국제 연합,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12.10), [file:///C:/Users/admin/Downloads/%EC%84%B8%EA%B3%84%EC%9D%B8%EA%B6%8C%EC%84%A0%EC%96%B8\(%EA%B5%AD%EB%AC%B8\)%20\(1\).pdf](file:///C:/Users/admin/Downloads/%EC%84%B8%EA%B3%84%EC%9D%B8%EA%B6%8C%EC%84%A0%EC%96%B8(%EA%B5%AD%EB%AC%B8)%20(1).pdf)(검색일: 2025.3.8).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 http://www.kns.org:8116/index.php?mid=kns_board_01(검색일: 2024.9.4).

윤사순, “성리학(性理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9308>(검색일: 2024.9.11).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1789.8.26), <http://davincimap.co.kr/davBase/Source/davSource.jsp?SoUrID=SOUR001166>(검색일: 2025.3.8).

챗GPT 홈페이지, <https://chatgpt.com/g/g-FvT4UOsoA-caesgpt/c/66e1274f-6b08-800b-9ce9-e3c137890e7d>(검색일: 2024.9.11.).

MBClife, “황석영 작가가 말하는 AI 시대에 아이들이 순수 창작물을 읽어야 하는 이유”(2024.8.24), <https://www.youtube.com/watch?v=P3tKn1JuFBg>(검색일: 2024.11.6).

A Sociological Perspective on the Korean Catholic Church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Kim, Seon Pil

The emergence of AlphaGo and ChatGPT was a significant event that signaled the dawn of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I is now deeply approaching every aspect of human life, and the changes it will bring are difficult to predict. The Korean Catholic Church is also facing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AI, but discussions on this are somewhat insufficient. This paper aims to sociologically forecast the changes 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that will be brought about by AI and suggest alternatives. Namely, in order for the Korean Catholic Church to be reborn as a healthy community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the purpose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society and the Catholic Church in the age of AI and suggest the direction the Church should take within it. To this end, we generally examin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AI by examining the reality of today's AI technology, human desires, and the Church's teachings regarding it. Based on this, it forecasts the challenges that AI will bring to the Korean Catholic Church and discusses how the Korean Catholic Church should respond to such challenges. Ultimately, it was found that the way for the Korean Catholic Church to respond to the age of AI is to return to the fundamental mission of the church. It is also deeply related to the Synodalitas that the Universal Church emphasizes today. If the Korean Catholic Church renews itself as a Synodal Church, it will be able to continue to exist as the light and

salt of the world even in the age of AI.

*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Hallucination, Imago Hominis, Korean Catholic Church, Synodality